



### 광주 광산소방, 노유자시설 화재 안전 조사

광주 광산소방은 최근 겨울철을 맞아 노유자시설인 장애인복지시설 로렌시아의 집을 방문해 화재예방을 위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겨울철을 대비해 화재취약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관계인의 화재예방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소방시설 전원·밸브 차단 여부 및 외관상태 점검 △비상구, 피난로 장애물 적치 여부 확인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법 안내 등 안전사항을 당부했다.

문형채 예방안전과장은 “장애인복지시설 등 노유자시설은 자력 대피가 어려워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초동대처가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 소방안전관리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상철 기자



### 최지후 공군 제1전비 상병, 휴가중 시민 구해

공군 제1전투비행단(제1전비) 소속 최지후 상병이 휴가 중 신속한 응급조치로 시민의 생명을 구한 사실이 알려져 감동을 주고 있다. (사진)

16일 제1전비에 따르면 지난 11일 휴가를 맞아 강원도 속초를 찾은 최 상병은 수산시장을 방문했다가 “사람이 쓰러졌다”는 다급한 외침을 듣게 됐다. 현장으로 달려간 그는 60대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응급처치 도중 시민들의 도움으로 119 구조대와 영상통화가 연결됐고, 그는 전문가의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응급조치를 이어갔다. 최 상병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어르신은 의식을 되찾았으며, 도착한 119 대원들에게 인계돼 상황은 마무리됐다.

최지후 상병은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했다”며 “군 복무 중 익힌 심폐소생술이 큰 도움이 됐고,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준명 기자



### 광주 남부경찰, 범죄취약지 민·경 합동순찰

광주 남부경찰 백운지구대와 주월파출소는 지난 13일 관내 취약지역 민·경 야간 합동순찰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

이번 순찰에 앞서 진행된 주월2동 자율방범대와 야간 합동순찰에서는 경찰활동 사항과 자율방범대 고충 및 건의사항 등이 공유됐다.

이어 민·경 합동 20여명이 참석한 가

운데 주월동 무등시장 상가와 여성안심귀가길, 상가 주변 원룸과 주택가 등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이 진행됐다.

주월파출소 관계자는 “범죄예방활동과 민·경치안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율방범대와 합동순찰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 광주기독병원, 대외진료협력센터 개소식

광주기독병원이 지난 14일 대외진료협력센터의 확장 및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사진)

16일 광주기독병원에 따르면 대외진료협력센터는 기존 진료협력센터에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방문객 안내와 진료 의뢰·회송 업무 이외에 진료전문상담과 외국인검진 업무를 통합적으로 하게 된다.

1,2차 협력 병·의원에서 의뢰된 환자와 3차 의료기관으로 전원 등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빠른 진료·입원 일정과 회송 등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료전달 확립으로 원활한 진료 및 적합한 의료서비스와 지속적인 치료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핫라인을 통해 진료과 분류가 어렵거나 심층 상담이 필요한 중증환자와 호스피스환자, 병원간 입원관련문의 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담 코디네이터가 상담을 진행한다.

노병하 기자



### 한수공 영·섬유역본부 '문화예술 데이' 운영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본부장 주인호)는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가족친화경영 실현을 위해 지난 13일 '문화예술 DAY'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는 지역 문화예술기관인 '기분좋은극장'을 운영하는 (주)플레이팩토리(대표이사 이하나)와 2024년부터 상생협약을 체결해 지역문화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지역상생 및 가족친화경영의 일환으로 「기분좋은극장」과 협력하여 본부 산하직원 및 직원 가족 등 약 50여명을 초청해 연극관람의 기회를 제공했다. 소극장 홍보와 함께 지역 공연문화의 우수성과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자리가 됐다.

주인호 영·섬유역본부장은 “앞으로도 한국수자원공사는 살기 좋은 지역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의 문화예술기관과 협업하여 더 다양한 노력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조진용 기자

### 황정하 전남대 교수, 제19대 한국아동가족복지학회장

전남대학교는 생활복지학과 황정하(사진) 교수가 '제19대 한국아동가족복지학회'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지난 1월1일자로 공식 취임한 황 교수는 오는 12월31일까지 1년간 학회를 이끌게 된다.

황 교수는 취임 소감을 통해 “저출생·고령화가 사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지금, 가족돌봄의 변화와 새로운 돌봄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학회의 학술적 위상을



확립하고 실질적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나은 돌봄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 교수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전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 부학장을 역임했으며 광주시 복지정책자문단 위원장,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대외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보장 혁신과 발전을 위해 힘써왔다.

최동환 기자

### 채널A, tvN 이겼다... '마녀' 2.4% 출발

채널A '마녀'가 tvN '별들에게 물어봐'를 꺾었다. (사진)

16일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한 마녀 1회는 전국 유료가구 기준 2.4%를 기록했다. 동시간대 방송한 이민호 주연 별들에게 물어봐 13회 (1.9%)보다 0.5%포인트 높은 수치다. 엄지원 주연 KBS 2TV '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 5회는 전국 기준 16.6%다.

마녀는 채널A 역대 드라마 중 첫 방송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 전작인 김지은 주연 '체크인 한양' 1회(1.8%)보다 0.6%포인트 높고, 마지막 16회 (4.2%)보다 1.8%포인트 낮다. 애초 디즈니+ 오리지널로 편성을 논의했으나 불발, 채널A와 라이프타임 등에서 선보이게 됐다.



이 드라마는 마녀라 불리는 소녀 '박미정' (노정의)을 사랑한 '이동진' (박진영) 이야기다. 강풀 작가의 동명 웹툰이 원작이다. 이날 방송에선 동진이 죽음의 법칙이 따라다니는 미정과 10년만에 재회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뉴스스

### 스트레이 키즈 필릭스, 교통사고 골절상

그룹 '스트레이 키즈' 필릭스(사진)가 교통사고로 골절상을 당했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15일 팬미팅 종료 후 필릭스가 탑승한 카니발이 인스파이어 아레나 주차장에서 메인 로비 방향으로 가던 중 뒤에서 서행하던 셔틀버스와 차량 좌측 후미쪽 접촉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고 자체는 경미했으나, 순간 필릭스 체중이 팔로 실리면서 차량 내부 팔걸이에 부딪혀 골절상을 입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사고 직후 필릭스는 병원으로 이동해 정밀 검사를 진행했다. 당분간



충분한 휴식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 진단을 받았다. 필릭스는 안정을 취하며 치료에 집중하고 있다. 금일 스트레이 키즈 팬미팅에는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됐다. 팬들의 너른 양해 부탁드린다.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점검·관리 강화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트레이 키즈는 14일부터 사흘간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5번째 팬미팅을 연다.

뉴스스



### 광주 남부소방, 승촌보캠핑장 안전 컨설팅

광주 남부소방은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14일 남구 소재 승촌보 캠핑장에서 화재안전컨설팅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

이날 소방대원들은 '소방시설 적정 관리', '질식사고 예방 등 화재 인명피해 방지 컨설팅', '텐트 간 이격거리 확보와 텐트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권고', '캠핑장 시설 안전점검' 등을 진행했다. 겨울철 캠핑장은 난방기구 사용량이 증가해 화재와 중독사고 등의 발생건수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텐트 내부에서 화로 등 난방기구를 사용하게 되면 일산화탄소에 중독될 위험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박중훈 남부소방서장은 “겨울철은 건조한 환경과 화기의 사용이 늘어나 작은 부주의가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용객의 주의와 관계자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윤준명 기자



### 전남도 신임 개방형 감사관에 최광식씨

전남도는 지난 14일 신임 개방형 감사관에 최광식(58) 전 감사원 국토환경감사국 감사관을 임명했다. (사진)

전남도는 전임 감사관의 임기 만료에 따라 올해 초 채용공고와 원서 접수를 했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거쳐 임용 추천 대상자를 결정했다.

신임 최광식 감사관은 전남대 토목공학과를 졸업, 1998년 12월 감사원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감사원 특별조사국, SOC시설 안전감사단, 지방행정감사국, 국토해양감사국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감사통이다. 특히 국가기반시설과 대형 국책사업 관련 분야에 탁월한 감사 능력을 인정받았다.

최광식 감사관은 “감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사전 예방 위주의 감사와 소통 감사를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전남’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